

與 “복지 구조조정” 野 “재벌감세 철회”

■ 선관위 주최 증세·복지 정책토론회 3당 열린 공방

공무원 연금·부동산 정책·비정규직 문제 놓고 설전

여야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정당 정책토론회에서 증세·복지 논란과 공무원 연금개혁, 부동산 정책,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우선 증세·복지 문제와 대해 새누리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한정된 재원에서 지출을 해야 하니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

다”면서 “일의 순서는 긴급하지 않거나 유사·중복 부분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먼저 하고, 증세 노력은 그 다음”이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준학 정책위 수석부 의장은 “재벌에게 비과세감면으로 세금을 깎아주고 법인세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벌들에게 5조원에 이르는 비

과세 감면을 줄이면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조승수 정책위의장은 “복지는 시대적 과제로 증세를 해서 재정규모를 키우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며,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증세 문제에 대해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김세연 부의장은 “공무원 연금을 이대로 두면 내년엔 하루 100억원, 5년뒤에는 하루에 200억원, 2026년에는 하루에 300억원의

국민 세금으로 보전을 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야당의 연금 개혁 안 제시를 촉구했다.

이에 홍준학 수석부의장은 “정부의 공적연금 무력화 기도에 동의하기 어렵고, 재벌에 대해 세금을 더 거두면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조승수 의장은 “정부·여당이 군사 작전하듯이 5월2일까지 마무리하려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김세연 부의장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는 있지만 온기가 식게 방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홍 수석부의장은 “전세금이 천정부지로 뛰는데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다. 정부정책은 단 하나, 빚내서 집사는 것”이라면서 “빚내서 집을 사니 돈이 없어 소비가 줄고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조속한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조 의장은 “빚내서 집사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도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악마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며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그 대가를 서민이 고스란히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김세연 부의장은 “민간 자율과 창의가 살아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돼야지, 정부가 청년실업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홍준학 수석부의장은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국민도 속고 저희도 또 속았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4·29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선 현장

정승 “광주경제 살려낼 일꾼 뽑아달라”

정승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23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언제부터 광주를 이토록 사랑했는지 궁금하다”며 “선거 때만 광주를 사랑한 척 하는 가식 정치를 그만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언제부터 광주에 대한 애착을 그토록 가졌는지 그 진정성에 의문이 간다”면서 “당과 후보 지지도가 떨어지자 부랴부랴 광주에 내려와 광주사랑 운운하는 것은 광주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특히 “광주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라며 “당파, 계파주의만 있을 뿐 광주 경제 발전은 모른체하는 야당이 선거를 맞아 광주를 입에 담은 것은 엄지엄



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의 당파적 이익을 올리기 위한 정치꾼 선거가 아니다”며 “1년의 임기 동안 힘든 광주경제를 살려낼 초석을 만들 수 있는 후보를 뽑는 ‘일꾼 뽑기 선거’라고 주장했다.

조영택 “안전 의식 높이는 데 힘 모아야”

조영택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는 23일 “지난 22일 새벽 발생한 강화도 캠핑장 화재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예비후보는 “세월호 이후 안전 강화 명분으로 국가안전처까지 설치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안전 불감증이 도사리고 있음을 입증한 인제(人)였다”면서 “봄철 아열대이 늘어나는 시점에 발생해 더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조 예비후보는 “정부는 이번 화재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야영장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각종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도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우리 사회가 모두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실현 노력”

천정배 무소속 예비후보는 23일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을 방문해 이기곤 기아자동차 광주노조 지회장을 비롯한 노조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천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이 될 경우 7944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236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72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며, 이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고 주장했다. 이어 “첨단기업 유치 및 수소에너지 산업의 체계적 육성으로 광주를 ‘수소에너지 메카’로 만들면 ‘광주 자동차 1백만대 생산 시대’와 결합, 수소전지연료차와 전기차 등을 생산하는 신성장 산업 도시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광주는 관련 첨단 기술과 제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노동자·서민 위해 선거 완주할 것”

강은미 정의당 예비후보는 23일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살아온 길과 가야 할 길이 다르고,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치,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서구민의 요청에 따라 단일화보다는 보궐 선거 승리를 위해 쉽없이 달려가겠다”면서 천정배 후보와의 단일화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천 예비후보가 지난 십수년간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는데, 광주로 온 이후에도 노동자·서민 생존권 및 삶의 아픔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실천을 보여 주지 못한 점, 탈당 이후 정치혁신과 정당정치에 대한 뚜렷한 소신과 비전을 보여 주지 못한 것에 큰 실망과 아쉬움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법진보정의 결집과 8년간 닦아온 지역 활동 성과를 기반으로 이번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운데)가 23일 서울 관악구 대학동 고시촌에서 ‘청년 1인 가구’인 김정현씨의 가게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현의 기적을 다시 한번...”

“이정현의 기적을 다시 한번...”

4·29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대거 광주를 방문한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오는 26일 오후 3시 시당 당사에서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4·29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이근천 사무총장, 이정현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공천이 확정된 정승 후보, 주요 당직자 및 당원 500여 명이 참석한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당원연수를 겸한 이번 필승결의대회를 통해 대대적인 지역 발전 공약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승 새누리당 서구를 국회의원 후보를 적극 알리려 유권자들의 표심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비록 광주가 새누리당의 불모지이지만 새누리당이 당 차원의 총력전을 전개하는 데는 여러 복안을 깔려 있다. 당장 정승 후보가 선전해 당선의 고지에 오른다면 새누리당의 입지가 크게 강화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 서구에서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탈당하고 무소속 후보로 선거전에 나서 야권의 전열이 흐트러진 상황 속에서 새누리당으로서는 해볼 만한 ‘판’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뚝딱의 성과’를 올린다면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까지 상승무드를 이어갈 수

김무성 대표 등 여권 지도부 대거 광주행 정승 후보 지원 당원 연수 겸 필승결의 대회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재보선 순천·곡성에서 출마해 기적을 이룬 이정현 최고위원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을 인정 받고 있는 만큼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선거전에 임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기본 입장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당원들에게 서구를 보궐선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김운세 시당위원장은 “이번 서구를 보궐선거는 정승 후보를 영입하는 등 새누리당에게 희망이자 기회이다”며 “필승결의 대회는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하여 당원들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이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김영란법 오늘 각의 상정 차대통령 거부권 행사 않을듯

언론 자유 침해 등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3주 만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며, 지난 13일 정부로 이송된 김영란법의 공포시한은 오는 27일이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이 기간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한 내 재의 요구도 이뤄지지 않으면 법률안은 법률로서 자동 확정된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국무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의료광고심의필 제140611-중-59153호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트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6/7층 라식센터
4/5층 수술센터
2/3층 외래진료

백내장 4층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상무지구 방면
운암동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